

광주시, 주민세 4500→1만원으로 올린다

정부 교부세 '페널티' 압박에

16년만에 2배 넘게 인상

광주시가 주민세를 주민 1인당 4500원에서 1만원으로 두 배 이상 인상한다. 광주시는 17일 장기간 동결된 주민세 균등분을 인상하는 내용의 '시세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개인균등분은

4500원에서 1만원으로 오른다. 개인사업자분은 5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법인분은 자본규모 등에 따라 현행 5만~50만원에서 7만5000~75만원으로 인상 조정된다. 주민세 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 주민에게 부과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 개인사업자분과 법인균등분은 1992년 당시를 기준으로 규정된 세율체계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개인균등분도 1999년 이후 조정되지 않고 있다.

광주시는 "주민세가 장기간 인상되지 않아 불가인상, 징세비용 등을 반영하지 못해 조세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인천·부산·세종시 등에서 추진중이고 기타 대부분의 자치단체도 올해 안에 조례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자치부도 그동안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상한인 1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를 삭감했으며, 추가로 삭감률을 높이기도 하는 등 자

치단체의 주민세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 주민세 미인상으로 보통교부세가 59억원이나 삭감됐으나, 내년부터는 시민이 추가 부담하는 40억원 외에 59억원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광주시의 주민세는 52억원이었다. 광주시는 추가 확보되는 재원을 시민편익 시책사업과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식품벤처·창업센터 설치

전남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17일 오전 여수에 자리한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농식품벤처·창업지원특화센터를 설치, 현판식을 가졌다. 농식품벤처·창업지원특화센터에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업수산물기술개발기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전문가 5명이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상주하게 된다. 이들은 전국의 농식품 창업 희망자, 청년 창업가 등을 대상으로 창업에서 성장기업으로 도약하도록 관계기관의 지원사업을 통합해 창업지원 프로세스 설계 및 각 기관을 연계 지원한다. 이같은 지원은 전통산업인 농업에 시장을 선도하는 아이디어와 정보통신기술(IT) 등 혁신적 기술을 융복합해 농식품 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실현되도록 뒷받침할 것으로 전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



전남도-녹십자 백신 투자협약 체결. 전남도는 17일 오전 화순군 화순읍 (주)녹십자 화순공장에서 녹십자 허은철 대표(가운데)와 백신 완제품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1113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왼쪽 두번째부터) (주)녹십자 조순태 부회장, 이낙연 전남도지사, (주)녹십자 허은철 대표, 구충근 화순군수. <전남도 제공>

영광 '찰보리 융복합사업 산업화 지구' 선정

6차 산업화 지구 조성

국비 15억 등 30억 지원

전남도는 17일 "올해 농식품부에서 공모 선정한 '6차산업화 지구 조성 사업'에 영광의 '찰보리 융복합사업화 지구'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6차산업화 지구 조성사업은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체험관광 등 농촌의 부존 자원이 집적된 지역을 6차산업화 지구로 지정해 전후방 산업이 융복합된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한 국비사업이다. 올해 사업은 지난 4월 30일까지 공모 과정을 거쳐 전남에서 영광 찰보리와 여수의 3도(島) 특산물 등 도내에서 총 6개 시·군에서 사업을 선정했다. 신청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발전 가능성, 지구화 여건 등에 대한 전문가의 서류평가와

발표평가, 현장조사 등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전남 1개소 등 전국에서 4개소가 최종 선정됐다. 6차산업 지구 조성사업은 국비 15억원 등 모두 30억 원이다. 앞으로 3년간 6차산업의 공동 인프라 구축과 네트워킹, 주제역량 강화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지구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업은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되 연계가 가능한 기존 자원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고, 자원간 연계, 산업주체 역량 제고, 제품 개발 등 소프트웨어(S/W)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선정된 영광의 찰보리 융복합사업화 사업은 전국 제1의 찰보리 주산지이자 유일한 보리특구로서 앞으로 보리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농가 소득 향상 등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

녹십자, 1113억 투자 백신 완제품 제조공장 증설

2018년까지 ... 독감백신 생산

화순에 백신공장을 운영중인 (주)녹십자가 오는 2018년까지 1113억원을 증액 투자해 57명을 고용하는 백신 완제품 제조공장을 건립한다. 전남도는 17일 (주)녹십자 화순공장에서 이낙연 지사와 구충근 화순군수, 허은철 녹십자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113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맺었다. 녹십자는 혈액제제, 백신 등 의약품 제조하고 판매하는 의약기업으로 지난해 기준 연매출 약 8500억원, 임직원 17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녹십자 화순공장은 독감백신 원액을 국내 최초, 세계 12번째로 생산하면서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가 대유행할 때 2500만 명분의 독감백신을 국내에 공급해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는 데도 큰 역할을

을 했다. 독감백신을 2010년 처음 수출한 이후 2011년에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국제임질 자격(WHO PQ) 승인을 획득했으며 지난해 총 생산량의 50% 이상을 세계 30여 개국에 수출했다. 녹십자는 국내외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백신 3.0 프로젝트 등 전남도의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 구축 사업에 동참하기 위해 이번 투자를 결정했다. 증설되는 공장에서는 독감과 수두백신을 확대 생산하고 디프테리아 파상풍 혼합백신(TdP)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혼합백신(Tdap) 신제품을 국내 최초로 생산할 예정이다. 이번 증설로 2019년 화순공장의 생산능력은 연간 2000억원대에 이르러 올해보다 3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포틀랜드에서 구례를 꿈꾸다

함정임 칼럼



열차가 콜롬비아 강변을 지나 포틀랜드로 진입했다. 시애틀 익스프레스 3시간 40분이 걸렸다. 강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이내 유니온 역의 시계탑과 빨간 지붕이 보였다. 하루의 태양빛을 고스란히 머금어 지붕도 벽도 오렌지 빛이 감돌고 있었다. 파리에서 대서양을 건너 뉴욕에 도착한 뒤 두 달이 지난 참이었다.

그동안 동부와 중부의 여러 도시와 대학들을 종횡무진 취재하며 돌아다녔다. 새로운 무엇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다채로운 경험이었다. 더 이상 어디를 가고, 무엇을 본다는 것이 한계로 여겨질 정도였다. 그런데 포틀랜드는 예외였다. 미국으로 떠날 때부터 '킨포크'의 발행자인 이 도시의 실상이 궁금했다. 서부 개척 시기에 형성된 이 도시의 무엇이 전 세계 '힙한' 젊은이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는 것일까.

'힙(hip)'하다는 표현은 21세기에 새로 등장한 용어로, '세련되고 현대적이다'라는 영어식 은어이다. 포틀랜드는 미국의 35세 이하 '힙한 세대'가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로 꼽힌다.

미국 인터넷 뉴스 매체 보카티브(Vocativ)는 '평균 수입과 취업률, 집세, 통근 시 차가 전용도로와 광대역, 맛있고 싼 테이크아웃 음식' 가능 여부와 '맥주 1파인트(570ml) 가격', '라이브 음악과 커피숍의 접근성' 등의 지표로 근거로 제시한다(트루 포틀랜드, 터닝포인트, 참고).

포틀랜드의 인구는 현재 60만 명 정도인데, 매년 증가 추세이다. 이것은 단순히 인구 증가 차원이 아니다. 특정 도시의 구성원으로서의 의식과 삶의 방식을 나타내는 용어라 사람과 사람을 파리지앵, 뉴욕 사람을 뉴요커라고 부르듯이, 포틀랜드 사람을 가리켜 포틀랜더라 부르기 시작한 것과 관계가 있다.

포틀랜더들의 삶의 내용과 형식을 들여다보면, 매력적인 항목들을 줄줄

이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걷기에 최적인 거리들, 이동에 용이할뿐더러 친환경적인 다양한 운송 수단들-자전거, 맥스 라이터 레일, 스트리트카(Streetcar, 전차), 트라이멧(Trimet, 경전철), 이러한 운송 수단들을 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설치물들, 먹기에 최상인 음식들, 도심과 전원 할 것 없이 개인 또는 동호인들 몇 명이 모여 작은 뒷밭에서 직접 재배한 야채로 만들고 나누는 로컬 푸드 문화, 두 개의 블록에 걸쳐 자리 잡고 있는 세계에서 제일 큰 파월 저점, 곳곳에 창고를 개조해 만든 로컬 맥주 양조장 클럽, 도시 전체가 하나의 카페라고 불릴 정도로 독특한 디자인과 콘셉트로 이루어진 바, 레스토랑, 카페들, 이들은 기존의 틀을 깨고 트렌드 서드(Trend 3rd)를 이끄는 창의적인 공간들이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전 세계로 전하는 창구가 온라인 에코 생활 잡지 '킨포크'이다. 그리고 '킨포크'의 생활 방식과 리듬을 추종하는 포틀랜더들을 따로 키포크족이라 명명하고 있다.

사람마다 도시와 맺는 관계법 다르다. 소설가에게는 세상 사람을 대하는 나름의 태도와 방식이 있다. 거기에서 문장이 비롯되고, 그러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글 또는 작품은 작가의 고유한 스타일을 형성한다.

나는 오랫동안 파리와 로마, 경주와 교토 같은 고도(古都)들에 남다른 친화력을 품어왔다. 반면 아메리카의 도시들에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굳이 이유를 찾자면, 자연과 역사, 문화와 예술에 대한 깊이와 분위기, 그에 따른 삶의 속도와 생활 방식에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내가 꿈꾸는 도시는 하나의 책, 도서관이자 카페, 삶과 예술이 공존하는 곳이다. 그런 의미에서 포틀랜드는 인간과 자연, 인간과 문명이 조화롭게 살아 숨 쉬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도시이다.

포틀랜드에서 오래된 주의 또다른 친환경 도시 유진으로 향하면서 한국의 포틀랜드를 꿈꾸었다. 훼손되지 않은 자연과 정신, 예술적 기운이 살아 있는 곳은 어디일까. 젊은 기운과 창의적인 발상으로 응집시킬 수 있는 곳, 광주 어류, 섬진강이 흐르는 지리산 자락의 구례가 그곳일까. 칠월에는 지리산 계곡, 구례로 달려가야겠다.

<소설가·동아대 한국어학과 교수>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